순천 원도심 6월 내내 먹거리·즐길거리 '한가득'

市·상권활성화재단, 소비 촉진 행사
스탬프 투어·먹거리 할인 등 활성화
루미네오락실 새단장 인증 이벤트도

순천시가 6월 한달간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지역 축제에 대대적인 소비 촉진 프로모션을 연계해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와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은 원도심 일대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들과 발맞춰 방문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6월 원도심 소비 촉진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축제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자연스럽게 인근 골목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흥미로운 미션과 실속 있는 이벤트를 전면 배치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원츠 순천' 행사와 연계한 '원도심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이다.

남문터광장에 마련된 원츠 순천 행사장을 출발해 루미&뚱이 캐릭터스토어(연자로 6), 루미네오락실(별미길 18) 등 원도심 상권 내 핵심 거점을 차례로 돌며 스탬프를 모두 모은 참가자에게는 원도심 일대에서 현금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권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방문객들의 미각을 자극할 풍성한 먹거리 프로모션도 한달 내내 이어진다.

지난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별미길 할인 프로모션'은 원도심의 대표적인 미식 명소인 곱창골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곱창골목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한 당일 영수증을 지참하고 루미네오락실을 방문하면, 별미길 내 지정 점포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3천원권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상권 주요 거점 시설인 '루미네오락실'도 새로운 오락 기기와 트렌디한 포토존을 확충해 새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재개을 기념해 같은 기간(8-30일) 시설을 즐기고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인증 사진을 게시하면, 별미길 지정 점포 전용 3천원권 먹자 쿠폰을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려 재미를 더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6월 한달 동안 원도심 곳곳에서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가 열리는 만큼,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오시길 바란다"며 "골목골목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는 즐거움은 물론, 맛있는 먹거리와 쏠쏠한 할인 혜택까지 빈틈없이 누리며 지역 상권에 훈풍을 불어넣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곽동현 기자

고흥 시니어순찰대, 등굣길·경로당 안전 책임진다

노인일자리 일환 지역 안전망 구축
초등학교 주변 점검 피싱 피해 예방

고흥군이 '시니어안전순찰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에 나선다.

10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고흥시니어클럽과 손잡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고령층의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시니어안전순찰지원 사업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사진〉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학교 주변과 마을 주요 이동로, 경로당 등을 직접 순회하며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는 지역 밀착형 노인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현재 8명의 어르신이 순찰대원으로 선발돼 지역 곳곳을 누비며 든든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스쿨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순찰대는 고흥읍과 도양읍 관내 4개 초등학교 인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이들은 2인1조로 편성돼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수상한 정황이나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알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고 있다.

더불어 순찰대는 관내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해 동년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과 의심 전화 대처법, 개인정보 보호 수칙 등을 세심하게 안내하며 고령층의 금융 사기 피해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주민들에게는 한층 강화된 생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시니어 순찰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풍부한 연륜과 역량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스마트팜 직접 설계"…곡성군, 명품농업대학 개강

농업인 29명 참여…현장 밀착형 교육

곡성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6기 곡성명품농업대학 AI 활용 스마트팜 설계 과정(2차)' 개강식이 열렸다. 〈사진〉

이번 교육은 올해 초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1차 과정에 이어 디지털 첨단 농업 기술 보급을 한층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스마트팜 설계 및 제어 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시설재배 농업인 29명이 우선 선발돼 참여한다.

이들은 이달 한달 동안 총 7회(28시간)에 걸쳐 AI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만의 스마트팜을 직접 설계하고 구축해보는 단기 집중 실습 교육을 받는다.

특히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생 전원에게 자동화 원격제어 키트가 제공되며, 교육생들은 제공된 키트를 손수 조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영농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탄탄하게 기르게 된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서 진행 중인 블루베리 스마트팜 과정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실습 위주의 2차 과정을 기획했다"며 "농업인들이 첨단 디지털 농업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담양군, '담아또 딸기칩 상품화 교육' 성료

농가 가공역량 강화·실무 중심 교육

담양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담양영농조합법인 조합원 25명을 대상으로 '담아또(사진) 딸기칩 상품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00% 담양산 딸기를 활용한 동결건조 딸기칩의 품질을 표준화하고,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딸기 재배 농업인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동결건조 딸기칩을 생산·판매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딸기 원물 관리 ▲급속동결건조 공법 이해 ▲영양정보 표시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생들은 15·30·50g 규격의 소포장 작업과 수평형 포장 밀봉기(밴드실러) 사용법을 직접 실습하며 현장 활용 능력을 높였다.

김남송 농촌지원과장은 "담아또 딸기칩은 동결건조 기술을 활용해 생딸기의 모양과 맛, 영양을 살린 가공식품"이라며 "100% 담양산 딸기만을 사용한 제품인 만큼 '담아또 딸기잼'에 이어 농산물가공센터를 대표하는 가공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여수해수청 광양사무소, 광양항 항행 특별단속

20일까지 불법 어구 등 집중 점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해양수산사무소는 10일 "오는 20일까지 선박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광양항 해상안전 강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어로 행위와 해상 장애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 화물선의 입출항이 잦은 국가관리무역항인 광양항은 항로와 항만시설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어구나 각종 부유물이 대형 해양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이에 광양해양수산사무소는 자체 단속반을 꾸려 단속이 느슨해지는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선박 통항로 주변 불법 어구에 경고문을 부착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 안전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항행 장애물은 항만순찰선을 투입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 조치할 방침이다.

광양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광양항은 국가 물류의 핵심 거점인 만큼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보성군은 최근 전남노동권익센터와 합동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주노동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나서

보성군이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10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노동권익센터와 합동으로 회천면 일대 감자 수확 농가 5곳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주노동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합동 점검반은 땡볕에서 고된 농작업을 이어가는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음료와 얼음물, 아이스크림을 직접 건네며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수시로 물 마시기 ▲충분한 휴식 취하기 ▲무더운 시간대 작업 강도 조절하기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어지럼증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 작업을 멈추고 쉴 것을 당부했다.

현재 보성군은 심각한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6개국에서 총 1천212명의 인력을 배정해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형복 농축산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장흥군 "주민참여예산학교로 자치 역량 향상"

이장단·청소년·여성단체 대상
오는 22일까지 제안사업 공모

장흥군은 "최근 군민들의 예산 편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운영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관산, 대덕, 안양 등 5개 읍·면 이장협의회와 안양중학교 청소년, 여성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 교육으로 진행됐다. 〈사진〉

현장에서는 장흥군의 재정 현황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 올해 운영 계획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민들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왔다.

특히 타 지자체의 우수 제안 사례를 공유하며 장흥군 실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참신한 생활 밀착형 사업 아이디어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장흥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직접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소통 창구"라며 "주민들의 소중한 제안이 내실 있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다채로운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장흥=노형록 기자